

물오른 손흥민 3경기 연속득점 노린다



**토트넘 10일 밤 10시30분 레스터시티와 홈경기
살인일정 불구 팀 복귀후 2경기 연속 득점포
선두와 승점 5점차 불과 우승경쟁 노려볼만**

10일간 꿀맛 휴식을 취한 토트넘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 득점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오는 10일 (이하 한국시간) 밤 10시 30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레스터 시티와 2018-2019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6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가야니었음에도 팀 복귀 후 2경기 연속 득점포를 쏘아 올렸다. 그는 바담난 체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31일 왓퍼드전에 선발 출전, 0-1로 뒤지던 후반 35분 천금 같은 동점 골을 쏘아 올렸다. 손흥민의 골은 경기 흐름을 뒤집는 변곡점이 됐다. 토트넘은 후반 42분 페르난도 요렌테의 결승 골로 2-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단 이를 만에 또다시 선발 출전 임무를 맡았다. 2일 뉴캐슬과 경기에서 2선 공격수로 출전했다.

토트넘은 7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후반 막판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다. 손흥민은 이런 토트넘을 다시 구했다. 후반 38분 정확한 중거리 슈트로 결승 골을 뽑아내 1-0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14호 골, 리그 10호 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최근 3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프리미어리그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한국선수로는 최하다.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

버큐에서 뛰던 2012-2013시즌부터 3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같은 기록을 세웠다. 토트넘에 복귀한 뒤 무서운 정신력으로 두 경기 연속골을 작성하며 해리 케인과 델레알리가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의 핵심 골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손흥민은 뉴캐슬전 이후 10여일간 휴식을 취했다. 이제 눈앞에 닥친 경기는 레스터 시티전. 손흥민은 레스터만 만나면 강한 면모를 보였기에 이날도 선발 출전이 예상된다. 그는 2015년 토트넘 합류 후 8경기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했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레스터에 4승 2무 2패로 강세를 보였다. 토트넘은 승리가 필요하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에서 토

트넘은 승점 57점(19승6패)으로 3위다. 1위 20승2무4패(승점 62점)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2위는 19승5무1패(승점 62점)의 리버풀이다. 승점 차는 5점에 불과해 우승경쟁에도 뛰어 들 수 있다. 손흥민은 최근의 무서운 활약으로 영국 언론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가스 크룩스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라인업에 복귀한 것은 페라리에 연료를 부은 것과 같다”라며 칭찬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레전드 공격수’ 앨런 시어러도 BBC 방송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해 “손흥민은 올해의 선수 후보에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전선수들의 줄부상속에서 원맨쇼를 펼친 손흥민은 최근 출전한 10경기에서 ‘9골 5도움’으로 맹활약했다. 10일 레스터전도 기대해볼 만하다. /연합뉴스

광주FC 우즈벡 국가대표 아슬마토프 영입

위치 선정·빌드업 강점...수비진 강화

광주FC가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수비수인 아슬마토프(22·Rustam ASHURMATOV)를 영입, 수비를 강화했다. 외국인 수비수 영입은 장단 후처음이다.

7일 광주FC에 따르면 아슬마토프(185cm 74kg)는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매디컬테스트를 마치고 곧바로 팀에 합류해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수비 시 위치 선정과 안정적인 볼 처리, 정확한 톱패스 등이 강점이며, 스피드가 좋아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소속팀인 분요드코르에서 4시즌(2015-2018) 동안 91경기 5골을 기록했다.

2013 FIFA U-17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4 AFC U-19 챔피언십, 2015 FIFA U-20 월드컵 등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아슬마토프는 2017년 A매치 데뷔전(vs.그루지아)을 치렀다.



이후 2018 아시아 네이션스컵 8강 결연과 함께 AFC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아슬마토프는 “나에게 광주는 첫 해외 진출 팀이자 새로운 도전의 무대”라며 “광주의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팀에 잘 적응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장단 처음으로 외국인 수비수를 영입했다. 지난 시즌 아쉬움을 보완하고 반드시 승격하겠다는 의지”라며 “아슬마토프는 풍부한 경험이 있고, 팀 스타일과도 일치한다. 올 시즌 광주의 수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벙커 탈출 페르닐라 린드베리가 7일 호주 빅토리아의 13번 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ISPS 한타 빅 오픈 1라운드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KIA 2019년 홈경기 입장료 동결

3월 16일 개막전 예매...시즌권 11일부터 판매

KIA 타이거즈가 2019시즌 홈경기 입장요금을 동결·확정했다.

내야 중앙 지정석인 K9존은 성인 1만4,000원이고, 1,3루 내야 하단석인 K7존은 성인 1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K5존은 성인 1만1,000원이다.

내야 상단석인 K3존(성인 8,000원)과 외야석(성인 9,000원) 역시 지난해와 같다.

K9, K7, K5, K3, 외야석 가격은 동일 기준이며, 휴일에는 각각 2,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어린이는 50% 할인 판매한다. 포수 뒤편 챔피언석은 4만5,000원(휴일 5만원)이며, 중앙테이블 2인석은 평일 8만원(휴일 9만원), 중앙테이블 3인석은 평일 12만원(휴일 13만5,000원)이다. 이와 함께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에서 열리는 2019시즌 홈 경기 시즌권을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판매한다.

시즌권은 KBO 정규리그 홈구장(기아 챔피언스 필드) 72경기를 기준으로 중앙 테이블석(3인석)과 지정석에 한해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070-8191-7890, 7899)를 통해 판매한다. 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중앙테이블 3인석이 677만2,000원에 판매된다.

한편 3월 23일 광주 개막전(LG전) 입장권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예매는 인터넷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 사이트나 모바일 앱, 전화(1588-7890)를 이용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선수가 존중받는 선수촌 만들겠다”

신치용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선임

“시대정신에 걸맞게 선수들이 존중받는 선수촌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수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에 집중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의 산실인 충북 진천선수촌의 살림을 총괄하는 선수촌장에 7일 선임된 신치용 삼성화재 고문(64)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하는 선수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치용 선임 촌장은 남자배구 강자였



던 삼성화재의 사령탑 시절 실업리그를 포함해 2014-2015시즌까지 무려 19시즌 연속 챔피언전에 올랐던 명장 출신이다. 신 촌장은 특히 슈퍼리그와 V리그에서는 총 17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우승 청부사’였다. 그는 선수촌과도 인연이 깊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남자배

구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던 신 촌장은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때도 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지휘했다.

배구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선수촌장에 오른 그는 “선수촌장 제안을 받고 망설였던 게 사실”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중한 선수와 지도자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1년 처음 선수촌에 지도자로 들어온 이후 12년을 선수촌에

서 생활했다”면서 “진천선수촌은 처음이지만 선수가 존중받는 선수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선수들이 존중받는 시대정신에 걸맞게 기원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면서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의 성적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몰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진천에 내려와 (이기흥) 회장님을 만난 후 선수촌을 둘러봤다”면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한편 빨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 살림을 이끌 새 사무총장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56)이 선임됐다. /연합뉴스

2019 시즌				비고			
좌석명	성인/어린이	가격	휴일	좌석명	성인/어린이	가격	휴일
K9 석	성인	14,000	16,000	챔피언석(1인)		45,000	50,000
				중앙테이블석(2인석)		80,000	90,000
				중앙테이블석(3인석)		120,000	135,000
K7 석	성인	12,000	14,000	1,3루 테이저석(4인석)		70,000	80,000
				1,3루 테이저석(6인석)	할인없음	105,000	120,000
				파티석(4인석)		100,000	120,000
K5 석	성인	11,000	13,000	스카이 피크닉석(4인석)		70,000	80,000
				에코다이나믹석(6인석)		96,000	108,000
				서프라이즈석(1인석)		22,000	25,000
K3 석	성인	8,000	9,000	장애인 지정좌석(99석 위주)	1-3급 장애인	4,000	5,000
					동반 1인/현장판매		
외야석	성인	9,000	11,000	휠체어석	내야석	4,000	5,000
					외야석	무료	동급 1-3급 무료

박성현 “평생의 꿈 이뤘어요”

타이거 우즈와 광고 촬영 “잊지 못할 것”

골프 스타 박성현(26)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만났다. 박성현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 있는 메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우즈와 골프용품 업체 ‘테일러 메이드’ 광고 촬영을 했다. 우즈는 주피터 주민이며, 메달리스트 골프장 회원이다.

미국프로골프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를 대표하는 스타 우즈와 박성현이 함께 찍은 이 홍보 영상과 사진은 미국과 전 세계 TV와 소셜 미디어로 배포될 예정이다. 테일러메이드 관계자는 “신제품에 적용할 기술 ‘스피드 인젝션’을 강조하면서, ‘스피드는 전 세계 어떤 언어

로든 통용된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박성현과 우즈의 만남을 추진했다. 미국과 한국 마케팅팀에서 오랫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박성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테일러메이드에서 제 평생 꿈을 이뤄주셨습니다. 타이거와 함께 한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박성현은 우즈와 나란히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하고, 골프장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골프를 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연합뉴스



박성현이 6일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 있는 메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골프용품 업체 ‘테일러 메이드’ 광고 촬영을 했다. /박성현 인스타그램 캡처